

## 중학생의 형제자매 괴롭힘 피해경험, 성격적 자기비난, 대처효능감과 또래괴롭힘 피해경험 간의 구조적 관계

윤 정 민                      이 은 주                      이 승 연<sup>†</sup>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형제자매 괴롭힘 피해경험이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으로 이어지는 기제를 밝히기 위해, 형제자매 괴롭힘 피해경험, 성격적 자기비난, 또래 공격성에 대한 대처효능감, 그리고 또래괴롭힘 피해경험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서울 및 경기도 소재 중학교 1-3학년 559명의 자기보고식 설문자료를 분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결과, 형제자매 괴롭힘 피해경험은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을 직접적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형제자매 괴롭힘 피해경험은 성격적 자기비난과 대처효능감을 순차적으로 거쳐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형제자매 괴롭힘 피해경험이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으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기제를 밝힌 국내 첫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또래괴롭힘 개입 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 형제자매 괴롭힘 피해경험, 또래괴롭힘 피해경험, 성격적 자기비난, 대처효능감

---

<sup>†</sup> 교신저자 : 이승연,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03760)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E-mail: slee1@ewha.ac.kr

형제자매는 가족이자 친구로서 평생을 함께 하는 존재로, 긍정적인 형제자매 관계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며 서로에게 정신적인 지지체계가 되어준다(Wolke & Skew, 2012). 형제자매는 종종 시기, 질투, 경쟁 및 갈등을 경험하게 되지만 이는 정상적인 발달과정의 일부로, 형제간 동등한 힘을 지닌 상태에서의 갈등 경험은 대처 및 조망수용능력을 향상시키고(Wolke, Tippet, & Dantchev, 2015),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킨다(Yeh & Lempers, 2004). 그러나 힘의 균형이 깨져서 지배-피지배 관계가 형성된 경우는 정상적 갈등 수준을 넘어선, 부적응적 형제자매 관계로 봐야 마땅하다(Hoetger, Hazen, & Brank, 2015; Kiselica & Morrill-Richards, 2007).

이러한 부적응적 형제자매 관계는 흔히 '형제자매 간 폭력'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폭력은 주로 일회적인 사건을 일컫는 경우가 많으므로 형제자매 간 반복적인 갈등 양상을 지칭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Wolke & Skew, 2012). 이에 많은 연구에서 형제자매 간의 부적응적 관계를 괴롭힘(bullying)의 한 유형으로 접근하고 있다(김진구, 김은하, 2017; Wolke & Skew, 2012; Wolke et al., 2015; Yabko, Hokoda, & Ulloa, 2008).

괴롭힘이란 힘의 불균형이 있는 관계에서 약자에게 행해지는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공격 행동이다(Olweus, 1994). 형제자매는 한정된 가정 내 자원을 공유해야 하는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Kiselica & Morrill-Richards, 2007) 일부 형제는 자신의 이득이나 목표를 위해 자신보다 힘이 약한 형제자매를 의도적으로 공격하기도 한다(Wolke et al., 2015). 한편, 가족관계라는 특성상 괴롭힘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형제자매 괴롭힘

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피해는 만성화된다(Finkelhor, Turner, & Ormrod, 2006). 이처럼 형제자매 간 부적응적 관계는 괴롭힘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형제자매 괴롭힘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형제자매 괴롭힘 유병률은 연구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는데, 이는 괴롭힘의 범주를 벗어난 피해경험까지 측정하거나(Bowes, Wolke, Joinson, Lereya, & Lewis, 2014) 빈도 및 지속기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과 관련이 있다(Finkelhor et al., 2006; Yabko et al., 2008). 이에 Wolke와 Samara(2004)는 설문 시 괴롭힘의 정의를 제공하고, 지난 6개월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피해경험이 있는 경우를 형제자매 괴롭힘 발생 기준으로 삼았다. 그 결과, 피해율은 16.5%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6개월간 4회 이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형제자매 괴롭힘 피해자는 16%로 나타났으며, 가해-피해를 모두 경험한 경우는 33%였다(Wolke & Samara, 2011). 한편, 형제자매 괴롭힘은 아동기 때 가장 빈번히 발생하고 가정 밖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청소년기에 이르면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Finkelhor et al., 2006).

그러나 지난 6개월 내에 형제자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한 피해자 중 50.7%는 동일한 기간 동안 또래로부터도 괴롭힘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Wolke & Samara, 2004), 형제자매 괴롭힘 가해경험이 또래괴롭힘 가해경험을, 형제자매 괴롭힘 피해경험은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을 각각 정적으로 예측하였다(Menesini, Camodeca, & Nocentini, 2010; Wolke & Skew, 2011). 이와 유사하게, 11-16세 대상의 국내 연구에서는 형제자매 폭력 가해경험이 학교폭력 가해경험을 정적으로 예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배화옥, 2011), 16-17세 대상의 또 다른 연구에서는 형제폭력 가해 및 피해경험이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경험을 각각 예측하였다(정재은, 장재홍, 2017). 한편, 김진구, 김은하(2017)의 초등학교 3-6학년 연구에서 형제자매 괴롭힘 가해경험이 있더라도 친구관계의 질이 좋다면 또래괴롭힘 가해경험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형제자매 괴롭힘 피해경험은 친구관계의 질과는 무관하게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가정은 개인의 사회화를 위한 주요 맥락으로, 또래괴롭힘 예방과 개입에서 그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김경희, 2016; 김연화, 한세영, 2009). 그동안 또래괴롭힘에 기여하는 가정환경 요인으로는 주로 부모의 양육 방식이나 애착안정성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으나(이승연, 최은지, 황보람, 2017; Baldry & Farrington, 2000; Dykas, Ziv, & Cassidy, 2008; Nikiforou, Georgiou, & Stavrinides, 2013), 또래괴롭힘 피해경험과 가족요인의 관계를 확인한 Yabko 등(2008)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태도와 더불어, 형제자매 괴롭힘 가해 및 피해경험이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을 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제자매 괴롭힘과 또래괴롭힘 간의 연관성은 사회학습이론으로 설명가능하다. 아동은 형제자매와의 교류를 통해 또래와 상호작용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사회기술을 학습한다(Bryant & DeMorris, 1992). 만약 형제자매와 잦은 갈등을 경험하며 성장할 경우, 적대적 상호작용 방식을 학습하게 되고(Slomkowski, Rende, Conger, Simons, & Conger, 2001), 이는 또래맥락에서도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적절한 사회적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는 아동들은 집단에서 인정받기 어렵고 또래로부터 거부당

하기 쉽다(Buist, Deković, & Prinzie, 2013).

이처럼 형제자매 괴롭힘 피해경험이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을 예측하는 주요한 요인이며, 가정과 또래맥락 모두에서 괴롭힘 피해를 당하는 청소년이 행동문제를 더 많이 보고할 뿐 아니라(Wolke & Samara, 2004), 높은 수준의 우울로 이어진다는 점(김진구, 김은하, 2017)에도 불구하고, 형제자매 괴롭힘 피해경험이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으로 이어지는 구체적 기제에 대해서는 경험적 연구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형제자매 괴롭힘 피해경험이 어떤 매개변인을 통해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Perry, Hodges와 Egan(2001)은 형제자매 괴롭힘 피해경험이 또래맥락에서 되풀이되는 기제를 설명하고자 피해자 도식(victim schema) 개념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반복적으로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이를 사회적 관계에 대한 표상으로 내면화하여 자신이 약하고 무기력하다고 생각하는 피해자 도식을 갖게 된다. 피해자 도식은 이전의 피해경험과 유사한 상황에 놓이면 쉽게 활성화되어 상황을 위협적으로 지각하게 만들고, 자신이 또 다시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만든다. 이에 따라 이들은 또래 공격성에 취약한 방식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Rosen, Milich와 Harris(2007)는 이런 과정이 반복될 경우 피해자는 자신이 괴롭힘을 당할 만한 존재라고 여기는 성격적 자기비난을 보이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여기게 되면,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무력감에 빠져 또래 갈등상황에서 자신의 대처능력을 과소평가하게 된다(Rosen, Milich, & Harris, 2009). 결과적으로, 가해자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복종적

인 태도를 보이게 되고, 타인들에게 약자로 인식됨에 따라 추가적 피해를 당할 위험이 높아진다(Perry et al., 200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형제자매 괴롭힘 피해경험과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을 매개하는 변인으로 성격적 자기비난과 대처효능감에 초점을 맞추었다.

성격적 자기비난은 바람직하지 못한 자신의 내면적 속성 때문에 부정적 사건이 발생했다고 믿는 것으로, 부정적 사건을 일으킨 원인을 변화시키거나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믿는 것이다. 성격적 자기비난은 안정적이지 않으며 통제 가능한 요인으로 인해 부정적 사건이 발생했다고 믿고 본인의 과거 행동이나 노력 부족을 탓하는 행동적 자기비난과는 차이가 있다(Janoff-Bluman, 1979). 성격적 자기비난을 하는 또래괴롭힘 피해자들은 행동적 자기비난을 보이는 피해자들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수치심, 우울, 사회불안 및 외로움을 보고하였으며, 자기가치 또한 더 낮게 평가하였다(Graham & Juvonen, 1998; Schacter, White, Chang, & Juvonen, 2015; Tilghman-Osborne, Cole, Felton, & Ciesla, 2008).

한편, 괴롭힘 피해경험이 많을수록 성격적 자기비난을 더 많이 하게 되고(Graham & Juvonen, 1998; Schacter et al., 2015) 자기비난 사고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Singh & Bussey, 2011). 실제로, 어린 시절부터 계속해서 가해 형제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겪었던 형제자매 괴롭힘 피해자들은 스스로를 괴롭힘 당할 만한 존재라고 더 많이 인식하였다(Wiche, 1997).

더 나아가, 성격적 자기비난을 보고한 학생들은 다음 학기에 더 높은 수준의 또래괴롭힘 피해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Schacter et al., 2015). 이들은 괴롭힘의 원인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미래에도 괴롭힘을 당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기대를 갖게 된다(Graham & Juvonen, 1998). 따라서 또래관계에서 위축된 태도를 보이게 되고, 이는 괴롭힘 가해자에게 공격해도 되는 약한 상대라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괴롭힘에 취약하게 만들 것이다(Egan & Perry, 1998; Schwartz, Dodge, & Coie, 1993).

반면, 6-7학년을 대상으로 한 Graham과 Juvonen(1998)의 연구에서 성격적 자기비난은 또래수용 및 또래거부를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성격적 자기비난이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을 직접적으로 예측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 또한 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격적 자기비난이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을 직접 예측하는 경로를 포함한 연구모형과 해당 경로를 제거한 경쟁모형을 모두 확인해보고자 한다.

한편, 성격적 자기비난이 많아질수록 개인은 상황을 바꾸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판단하게 되며(Schacter et al., 2015), 이후에 또다시 부정적 사건에 직면했을 때에도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게 된다(Shaver & Drown, 1986). 다시 말해, 대처효능감, 즉, 사회적 갈등이나 부정적 상황에 본인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믿음이 저하될 것이다(Benight & Bandura, 2004).

실제로, 유산 경험이 있는 여성 집단에서 성격적 자기비난과 대처효능감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ueller & Major, 1989). 또한, 아동기 성학대 피해 여성과 교통사고 생존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해 부정적인 인지가 형성된 경우, 대처효능감이 저하되었으며 이는 외상 후 부적응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Cieslak, Benight, & Lehman, 2008).

한편, 자연재해와 같은 외상적 사건 또는 또래괴롭힘으로 인한 피해경험은 대처효능감을 부적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Benight & Harper, 2002; Singh & Bussey, 2011), 이러한 관계는 형제자매 괴롭힘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형제자매라는 관계 특성상 가해자로부터 쉽게 벗어날 수 없고, 형제자매 간 괴롭힘이 적절한 대처기술을 갖추기 이전인 아동기 초기부터 발생하여 만성화되기 때문에(Wolke & Skew, 2012), 형제자매 괴롭힘 피해자들은 적절한 대처행동을 수행하거나 이를 통해 성공경험을 갖는 것이 특히 어려울 수 있다. 실제로 형제자매 괴롭힘 피해자들은 괴롭힘에 대처하려는 시도를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계속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통제감 상실과 상황에 대한 무력감을 경험하였다(Buist et al., 2013; Meyers, 2017). 통제감 상실 및 무력감은 결국 대처효능감 저하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Egan과 Perry(1998)의 3-7학년 대상 연구에서는 또래괴롭힘 피해경험과 다음 학기에 측정된 자기주장성에 대한 효능감 간에 상관성이 유의하지 않았으며, 이는 간접적이긴 하지만, 형제자매 괴롭힘 피해경험과 대처효능감 간 경로가 유의하지 않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당 경로를 포함한 연구모형과 이를 삭제한 경쟁모형을 모두 검증하고자 한다.

한편, 자신의 대처능력을 낮게 평가하게 되면,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해서 잠재적 위협에 대처하려는 접근적 태도보다는 그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관여하지 않으려는 회피적 태도를 더 많이 보이게 될 것이다(Chang, 1998). 또한 자신이 스트레스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믿을수록

소극적 대처방식을 선택하게 되는데(Machmutow, Perren, Sticca, & Alsaker, 2012) 아동이 보이는 자기주장성 결여나 소극적 대처 등 사회적 위축 행동은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의 주요 예측 요인이다(Schwartz et al., 1993).

자신의 힘과 영향력을 확보 또는 유지하고자 하는 괴롭힘 가해자는 자신이 쉽게 제압할 수 있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아동을 괴롭힘의 대상으로 삼는다(Perry et al., 2001). 또래 공격성에 대한 대처효능감이 부족한 것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고, 결국 또래괴롭힘을 당할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자기주장성 효능감의 결여는 다음 학기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을 유의하게 예측한 바 있다(Egan & Perry, 1998).

정리하면, 본 연구는 여러 맥락에서 피해경험을 반복하는 피해자들에게서 관찰할 수 있는 피해자 도식에 관한 이론에 기초하여(Perry et al., 2001), 형제자매 괴롭힘 피해경험이 변하지 않는 자신의 내적 특성 때문이라고 믿는 성격적 자기비난을 증가시키고, 괴롭힘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다고 믿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또래 맥락에서의 괴롭힘 피해경험에 취약해 진다는 가정을 확인하고자 한다(그림 1).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격적 자기비난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다소 비일관적으로 나타난다. 또한 형제자매 괴롭힘 피해경험이 대처효능감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가정을 세웠으나, 두 요인 간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경험적 연구는 보고된 바가 없다. 따라서 연구모형에서 성격적 자기비난과 또래괴롭힘 피해경험, 그리고 형제자매 괴롭힘 피해경험과 대처효능감 간의 직접 경로를 삭제한 경쟁모형을 함께 검증하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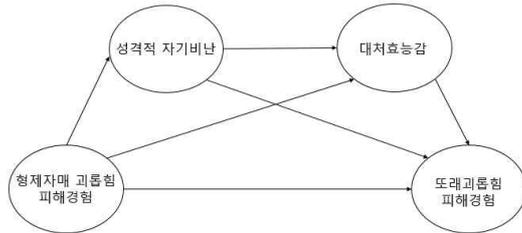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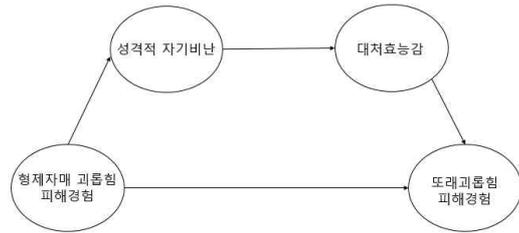


그림 2. 경쟁모형

한다(그림 2).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형제자매 괴롭힘 피해경험은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을 예측하는가?
2. 형제자매 괴롭힘 피해경험과 또래괴롭힘 피해경험 간의 관계를 성격적 자기비난과 대처효능감이 매개하는가?

## 방 법

###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를 위해 서울 및 경기도 소재 다섯 개 중학교 1-3학년생을 대상으로 2018년 11-12월 자기보고식 설문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751명의 자료 중 형제자매가 한 명 이상 있다고 대답한 652명의 자료로 한정하고,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n=63$ ), 척도별 극단치( $M \pm 3SD$  이상)를 보고한 경우( $n=30$ )를 제외하여 559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남아 285명(51%), 여아 272명(48.7%)으로(2명은 성별 표시 누락), 평균 연령은 15.38세( $SD=.56$ )이었다. 스스로 지각한 사회경제적 지위는 중(53.1%), 중상(30.2%), 상(10.7%) 순으로 나타났고 중간보다 낮다고 지각한 비율은 5.9%였다.

### 측정도구

#### 또래괴롭힘 피해경험

Salmivalli, Lagerspetz, Björkqvist, Österman와 Kaukiainen(1996)이 개발한 참여자 역할 질문지(Participant Role Questionnaire: PRQ)를 자기보고식으로 수정·보완한 서미정(2008)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피해경험 7문항만을 사용하였다(예, 반 아이들이 나를 때리거나 발로 찼다, 반 아이들이 내가 듣기 싫어하는 별명을 부르거나 욕을 하였다). 이번 학년도에 자신이 경험한 일을 5점 척도(1: 전혀 없음 ~ 5: 일주일에 여러 번) 상에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이 많음을 뜻한다. 서미정(2008)의 초등학교 5학년-중학교 1학년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는 .74, 본 연구에서는 .63이었다.

#### 형제자매 괴롭힘 피해경험

Olweus(1991)가 개발한 Bully/Victim Questionnaire를 Wolke와 Samara(2004)가 형제자매 관계에 적합하게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진과 이중 언어자인 심리학과 석사과정생 2인이 이중 역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신체적 괴롭힘 피해 2문항(예, 내 형제자매는 나를 때리거나, 발로 차거나, 밀었다), 언어적 괴롭힘 피해 2문항(예, 내 형제자매는 나를 못된 별명으로

블렀다)으로 구성되어있다. Wolke와 Samara (2004)의 방식대로, Olweus(1994)의 괴롭힘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였으며, 지난 6개월 동안 형제자매로부터 고의적이고 일방적으로 당한 경우에만 응답할 것을 요구하였다. 5점 척도(1점: 전혀 없음 ~ 5점: 일주일에 여러 번)로, 점수가 높을수록 형제자매 괴롭힘 피해경험이 많음을 뜻한다. Menesini 등(2010)의 중학생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alpha=.65$ , 본 연구에서는 .70이었다.

### 성격적 자기비난

Graham과 Juvonen(1998)이 개발하고 Tilghman-Osborne 등(2008)이 수정한 Attributional Blame Questionnaire(ABQ)를 이중 역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사건의 원인이 모호한 네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 후,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를 성격적 자기비난, 행동적 자기비난 각 5문항으로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성격적 자기비난 하위척도만을 사용하였다(예, 내가 만약 더 인기 있는 학생이었다면 그들은 나를 괴롭히지 않았을 것이다). 5점 척도(1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 5점: 매우 그렇게 생각한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고정 불변하는 내적인 속성을 닮는 경향이 강함을 뜻한다. Tilgham-Osborne 등(2008)의 중·고등학생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alpha=.86$ , 본 연구에서는 .96이었다.

### 대처효능감

Singh와 Bussey(2009)가 개발한 Peer Aggression Coping Self-Efficacy Scale (PA-CSES)을 이중 역번역하여 사용하였다. PA-CSES는 주도적 행동에 대한 자기효능감 15문항(예, 나는 다른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 공격적 행동을 하지 않

는 것에 대한 자기효능감 11문항(예, 나는 그 아이한테 보복하지 않을 수 있다), 자기비난을 피하는 것에 대한 자기효능감 10문항(예, 이 일이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피해자 역할을 벗어나는 것에 대한 자기효능감 8문항(예, 나는 지나친 걱정을 피할 수 있다), 총 44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내용 상 성격적 자기비난과 중복되는 자기비난을 피하는 것에 대한 자기효능감 척도를 제외하였다. 공격적 행동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자기효능감 척도 역시 제외하였는데, 피해자 도식에 근거하여 사회적 위축 행동을 보이는 소극적 피해자 유형에 관심이 있었던 본 연구와 달리, 공격적 행동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효능감이 저하될 경우에 오히려 외현화 문제가 증가하기 때문이다(Singh & Bussey, 2011).

5점 척도로 평정하며(1점: 전혀 잘 할 수 없다 ~ 5점: 매우 잘 할 수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 공격성을 잘 해결할 능력이 본인에게 있다고 믿음을 뜻한다. Singh와 Bussey(2009)의 10-15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주도적 행동에 대한 자기효능감  $\alpha=.87$ , 피해자 역할을 벗어나는 것에 대한 자기효능감 .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각각 .93, .95이었다.

### 자료분석

먼저, SPSS 22.0를 사용하여 연구변인들의 기술통계, 내적합치도, Pearson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연구모형 및 경쟁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Mplus 7.0을 사용하여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추정하였다. 하위요인이 있는 형제자매 괴롭힘 피해경험과 대처효능감은 내용기반 문항묶음을, 하위요인

이 없는 나머지 변인은 Little, Rhemtulla, Gibson과 Schoemann(2013)의 요인 알고리즘 방식에 근거하여 비표준화 요인부하량을 기준으로 문항묶음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 때 Little 등(2013)의 제안대로 각 문항묶음 형성 시, 개별 문항들의 합산점수 대신 평균점수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다변량 델타 방법(Sobel, 1982)으로 검증하였다.

## 결 과

### 형제자매 괴롭힘 피해경험 유병률

Wolke와 Samara(2004)가 제시한 형제자매 괴롭힘 피해 발생 기준을 적용하여 형제자매 괴롭힘 피해경험 유병률을 확인해보았다. 즉, 지난 6개월 동안, 신체적 괴롭힘 2문항과 언어적 괴롭힘 2문항, 총 4문항 중 하나 이상에서 ‘일주일에 한 번(4)’ 또는 ‘일주일에 여러 번(5)’ 괴롭힘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한 경우만을 괴롭힘 피해자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전체 559명의 중학생 중 60명인 10.7%가 형제자매 괴롭힘 피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각 측정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 그리고 상관계수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형제자매 괴롭힘 피해경험은 성격적 자기비난( $r=.21, p<.01$ ), 또래괴롭힘 피해경험( $r=.11, p<.05$ )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 대처효능감( $r=-.15, p<.01$ )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성격적 자기비난은 대처효능감( $r=-.44, p<.01$ )과 부적 상관이 있었으며,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 $r=.15, p<.01$ )과는 경미하지만 정적 상관을 보였다. 한편, 성별은 성격적 자기비난( $r=.32, p<.01$ ), 대처효능감( $r=-.37, p<.01$ )과 유의한 상관을 보여, 이후 분석 시 이 변인들에 대한 성별의 영향력을 통제하였다.

### 연구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 검증

구조모형의 검증에 앞서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각 측정변인에서 왜도의 절대값이 3 이하, 첨도의 절대값이 10 이하로 나타나 단변량 정규성 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하였다(Kline, 2011). 다음으로,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chi^2(df=38, n=559)=155.847, p<.001$ 로 모형이 자료에 부합한다는 영가설은 기각되었으나, 다른 적합도 지수들을 고려했을 때, CFI=.967, SRMR=.024, 그리고 RMSEA=.074(90% CI:.063-.087)로 측정변수들이 잠재변수를 잘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Browne & Cudeck, 1993; Byrne, 2012; Hu & Bentler, 1999).

한편, 각 측정변인들의 요인부하량은 .55~.95로, Fornell과 Larcker(1982)의 .50 초과 기준을 충족하였으므로 수렴타당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잠재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는 -.52~.28로 나타나 Kline(2011)이 제시한 .90 미만 기준을 충족하였으므로 변별타당도 역시 확보되었다고 판단하였다.

형제자매 괴롭힘 피해경험과 또래괴롭힘 피해경험 간의 구체적 기제를 가장 잘 설명하는 모형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에 대한  $\chi^2$ 차이 검증을 실시하고 각 모형의 여러 적합도 지수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FI=.964, SRMR=.029, RMSEA=.071(90% CI: .060-.082)이었으며, 경쟁

표 1. 연구변인과 통제변인의 기술 통계치 및 상관

	1	1-1	1-2	2	2-1	2-2	2-3	2-4	3	3-1	3-2	4	4-1	4-2	4-3	성별
1	-															
1-1	.82**	-														
1-2	.85**	.40**	-													
2	.21**	.13**	.21**	-												
2-1	.17**	.08**	.20**	.95**	-											
2-2	.22**	.16**	.20**	.96**	.85**	-										
2-3	.22**	.17**	.20**	.94**	.85**	.90**	-									
2-4	.17**	.10**	.19**	.94**	.88**	.86**	.81**	-								
3	-.15**	-.11**	-.15**	-.44**	-.41**	-.43**	-.44**	-.44**	-							
3-1	-.14**	-.11**	-.13**	-.39**	-.35**	-.38**	-.35**	-.38**	.94**	-						
3-2	-.14**	-.10**	-.14**	-.43**	-.41**	-.40**	-.40**	-.42**	.87**	.64**	-					
4	.11**	.08**	.09**	.15**	.13**	.15**	.13**	.16**	-.12**	-.11**	-.11**	-				
4-1	.05	.03	.06	.06	.06	.06	.04	.07	-.03	-.02	-.02	.80**	-			
4-2	.12**	.13**	.07	.15**	.12**	.16**	.15**	.15**	-.12**	-.12**	-.10**	.76**	.41**	-		
4-3	.10**	.06	.10**	.16**	.14**	.14**	.14**	-.17**	-.14**	-.12**	.14**	.85**	.49**	.51**	-	
성별	.14**	.06	.18**	.32**	.31**	.29**	.30**	.30**	-.37**	-.30**	-.39**	-.04	-.08	-.01	.01	-
M	1.31	1.32	1.30	1.99	2.00	1.99	2.00	2.00	3.56	3.72	3.25	1.23	1.30	1.20	1.20	1.49
SD	.58	.67	.72	.89	.95	.93	.95	.94	.80	.78	1.05	.39	.59	.47	.42	.50
왜도	2.20	2.61	2.99	.76	.69	.82	.79	.82	-.06	-.34	-.01	2.09	2.01	2.70	2.70	.05
첨도	4.23	7.11	9.34	-.25	-.51	-.04	-.18	-.06	-.19	-.08	-.62	3.97	2.85	6.80	7.71	-2.00

1 형제자매 괴롭힘 피해경험 1-1 신체적 괴롭힘 피해경험 1-2 언어적 괴롭힘 피해경험 2 성격적 자기비단 2-1 성격적 자기비단 2-2 성격적 자기비단 2-3 성격적 자기비단 2-4 성격적 자기비단 3 대처효능감 3-1 주도적 행동에 대한 자기효능감 3-2 피해자 역할을 벗어나는 것에 대한 자기효능감 4 또래괴롭힘 피해경험 4-1 또래괴롭힘 피해경험 4-2 또래괴롭힘 피해경험 4-3 또래괴롭힘 피해경험 3 (성별: 남=1, 여=2)

\*  $p < .05$ , \*\*  $p < .01$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FI=.964, SRMR=.035, RMSEA=.070(90% CI: .059-.081)로 나타났다. 따라서 두 모형 모두 좋은 적합도를 보였다 (Browne & Cudeck, 1993; Byrne, 2012; Hu & Bentler,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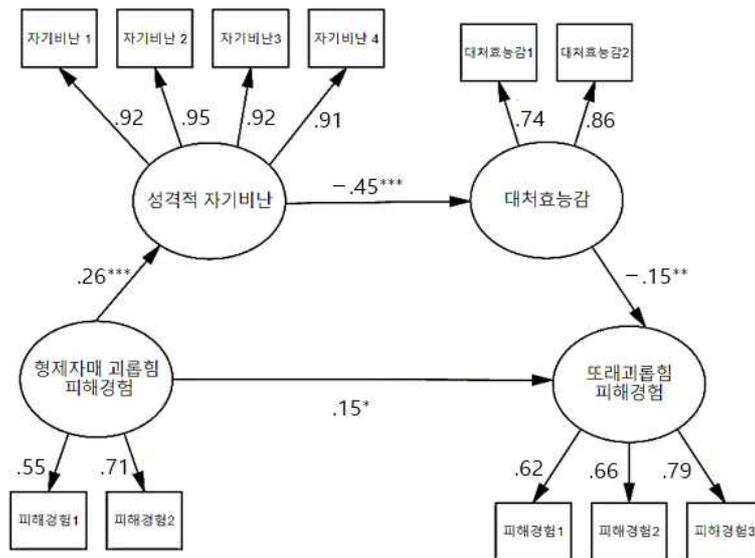
그러나 본 연구에서 설정한 경쟁모형은 연구모형에 위계적으로 내포된 상태이기 때문에  $\chi^2$  차이 검정을 통해 모형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연구모형은  $\chi^2(47)=177.828$ , 경쟁모형은  $\chi^2(49)=182.669$ 로 두 모형의 적합도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 $\Delta\chi^2=4.841$ ,  $\Delta df=2$ ), 간명성의 원리에 따라 더 단순한 모형인 경쟁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택하였다(그림 3).

최종모형에서 형제자매 괴롭힘 피해경험은 성격적 자기비난을 정적으로 예측하고( $\beta=.26$ ,  $p<.001$ ), 성격적 자기비난은 대처효능감( $\beta=-.45$ ,  $p<.001$ )을, 대처효능감은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을 부적적으로 예측하였다( $\beta=-.15$ ,  $p<.01$ ).

또한, 형제자매 괴롭힘 피해경험은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beta=.15$ ,  $p<.05$ ). 한편, 성격적 자기비난은 형제자매 괴롭힘 피해경험에 의해 12.8% 설명되었으며, 대처효능감은 형제자매 괴롭힘 피해경험과 성격적 자기비난에 의해 31.1%,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은 나머지 변인들에 의해 5.0%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 분석

선택된 최종모형에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Sobel test를 사용하여 검증하였다(Sobel, 1982).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형제자매 괴롭힘 피해경험이 성격적 자기비난과 대처효능감을 거쳐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으로 이어지는 이중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Z=.018$ ,  $p<.05$ ). 즉, 형제자매 괴롭힘 피해경험은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을 직접적으로 예



주. 모든 계수는 표준화 계수임, \* $p<.05$ , \*\* $p<.01$ , \*\*\* $p<.001$

그림 3. 최종모형 경로도

표 2.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추정치 및 간접효과 추정치

경로	비표준화	표준편차	표준화 계수
형제자매 괴롭힘 피해 → 또래괴롭힘 피해	.15*	.07	.15
형제자매 괴롭힘 피해 → 성격적 자기비난	.61***	.15	.26
성격적 자기비난 → 대처효능감	-.30***	.04	-.45
대처효능감 → 또래괴롭힘 피해	-.09**	.04	-.15
간접효과			
형제자매괴롭힘 피해 → 성격적 자기비난 → 대처효능감 → 또래괴롭힘 피해	.02*	.01	.02

\*  $p < 0.5$ , \*\*  $p < 0.1$ , \*\*\*  $p < 0.001$

측할 뿐만 아니라, 성격적 자기비난과 대처효능감을 순차적으로 거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논 의

본 연구는 형제자매 괴롭힘 피해자들이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연구결과(김진구, 김은하, 2017; Menesini et al., 2010; Wolke & Skew, 2011)에 기초하여, 형제자매 괴롭힘 피해경험이 어떤 기제를 통해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으로 이어지는 살펴보고자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Perry 등(2001)이 제안한 피해자 도식에 주목하였고, 형제자매 괴롭힘 피해경험이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 도식과 관련된 것으로 밝혀진 성격적 자기비난과 대처효능감(Rosen et al., 2007, 2009)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게 되었다.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결과, 형제자매 괴롭힘 피해경험은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을 직접적으로 예측하였다. 이는 형제자매 괴롭힘 피해

경험이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던 Menesini 등(2010), Wolke와 Skew(2011), 그리고 김진구, 김은하(201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가정 내 상호작용 방식이 가정 밖으로 전이되는 맥락전이 현상(carry-over effect)을 보여준다(Menesini et al., 2010; Stauffacher & DeHart, 2006). 가족 내 하위체계 중 형제자매 관계는 또래관계와 매우 유사한 상호작용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Dunn & McGuire, 1992), 부정적인 형제자매 간 관계양상이 또래맥락에서도 그대로 재현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형제자매 괴롭힘 피해경험은 이처럼 직접적으로 뿐 아니라, 성격적 자기비난과 대처효능감을 순차적으로 거쳐 간접적으로도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형제자매 괴롭힘 피해경험은 성격적 자기비난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즉, 형제자매 괴롭힘 피해경험이 많을 경우, 스스로를 결함이 있는 존재라 여기는 부정적 자기인식을 형성하고, 고정불변의 이러한 내적 특성들로 인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라 믿는 성격적 자기비난을 더 많이 하였다. 이는 아동기에 외상사건을

경험한 경우 자신과 대인관계에 대해 부적응적 도식을 갖게 되며(Carr & Francis, 2009), 지속적인 괴롭힘 피해경험이 자기비난 사고로 이어졌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Graham & Juvonen, 1998; Singh & Bussey, 2011).

이처럼 증가된 성격적 자기비난은 또래 공격성에 대한 대처효능감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산 경험이 있는 여성 중 성격적 자기비난을 하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유산경험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Major, Mueller, & Hildebrandt, 1985).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부정적 평가가 대처효능감을 부적으로 예측한 연구결과와 일치한다(Cieslak et al., 2008). 즉, 괴롭힘을 당하는 원인을 쉽게 변하지 않는 내적 특성으로 귀인 할수록, 괴롭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느끼며 자신의 대처능력까지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또래 공격성에 대한 대처효능감은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을 부적으로 예측하였다. 이는 자신의 대처능력을 낮게 평가할 경우 실질적인 위협이 없는 상황마저 위협적으로 지각하며(Ozer & Bandura, 1990), 자신의 대처수준을 넘어서는 상황은 의도적으로 피하게 된다는 연구결과(Bandura, 1993)로 뒷받침될 수 있다. 즉, 성격적 자기비난으로 또래 공격성에 대한 자신의 대처효능감을 낮게 지각할 경우 또래 맥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상황을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회피적 태도를 보이게 될 것이다. 이처럼 또래관계에서 지속적으로 위축된 태도를 보일 경우, 또래괴롭힘 가해자들에게 약자로 비추어지면서 더 쉽게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부적응적 귀인 평가는 대처행동에 대한 자기효능감 저하를 통해서만 소진(burnout)을 정적으로 예측했던 Chwalisz, Altmarier와 Russell(1992)의 연구로 간접적으로 뒷받침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하면, 형제자매 괴롭힘 피해경험은 직접적으로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을 예측할 뿐 아니라, 성격적 자기비난과 대처효능감을 순차적으로 거쳐서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에 기여함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이중매개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형제자매 간 괴롭힘 자체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데, 형제자매 간 갈등이 발생했을 때 부모가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거나 지나치게 통제적으로 중재할 경우 형제자매 괴롭힘 피해로 이어졌으나, 다른 형제의 감정을 설명해주고 문제해결 방법을 제시해주는 경우 형제자매 간 갈등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Bouchard, Plamondon, & Lachance-Grzela, 2018). 그러나 형제자매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자녀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일부 부모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거나,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기도 한다(Kiselica & Morrill-Richards, 2007). 이는 피해 자녀에게 더 이상 도움을 받을 곳이 없으며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무력감을 주기 때문에 형제자매 괴롭힘을 지속 및 악화시킨다(Wiche, 1997). 따라서 형제자매 간 갈등이나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부모가 이러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더 심각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적절히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부모를 대상으로 형제자매 간 갈등 중재(mediation)훈련을 실시했을 때, 부모와 자녀 모두 갈등해결 기술이 향상되었고, 자녀들

은 부모가 없는 상황에서 갈등이 발생해도 적응적으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었다(Smith & Ross, 2007). 이러한 사회적 능력은 또래 갈등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성격적 자기비난에 대한 개입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성격적 자기비난이 행동적 자기비난과 달리 부적응으로 이어지는 것은 내면의 요인 중에서도 통제 불가능한 안정적 특성에 귀인 하여 피해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다(Janoff-Bulman, 1979). 따라서 재귀인 훈련(reattribution training)을 통해 귀인 방식을 바꾼다면 성격적 자기비난으로 인한 부적응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통제 가능한 원인(예, 노력 부족이나 행동 특성)에 귀인 하는 행동적 자기비난을 보일 경우, 성격적 자기비난과 달리 우울, 불안 등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보고하지 않았다(Graham & Juvonen, 1998).

마찬가지로, 아동학대 피해자들이 부적응적 자기 귀인을 보일 때, 그것이 왜곡된 인지임을 직면시키고 이를 적응적으로 수정해준 결과, 통제집단에 비해 부적응적 자기비난과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이 유의하게 적게 나타났다(Celano, Hazzard, & Campell, 2002). 이에 근거하여, 형제자매 괴롭힘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내적 특성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비난하기보다는 본인의 행동 변화를 통해 피해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형성해주는 인지적 개입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러한 인지적 개입은 성격적 자기비난으로 인해 또래갈등 상황에서의 자신의 대처능력까지 낮게 평가하여 소극적으로 되는 것 역시 줄이게 될 것이다. 한편, 대처효능감 자체를 증진시키는 노력 역시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자기효능감은 성공경험이 쌓여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생길 때 증진된다(Bandura, 1993). 또한 타인의 행동방식을 관찰하는 대리경험을 통해서도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으며, 타인으로부터 얻는 격려 또한 자기효능감 수준을 증가시킨다(Bandura, 1977). Singh과 Bussey(2009)는 가상적 또래 갈등상황에서 자신이 보여야 할 적응적 대처기술을 브레인스토밍하고 직접 역할놀이를 통해 반복 연습함으로써, 효과적 대처기술을 습득하고 자신감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제안한 바 있다.

본 연구는 형제자매 괴롭힘 피해경험과 또래괴롭힘 피해경험 간의 관련성을 개인 내적 기제를 중심으로 살펴본 국내 첫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가정과 또래맥락에서의 괴롭힘 피해 중복 경험에 대한 구체적 기제를 확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개입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 참여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형제자매 괴롭힘 및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을 보고하였다. 형제자매 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개인은 전체의 10.7%로, 약 16%였던 외국의 연구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다. 추후 연구에서는 피해경험이 좀 더 심각한 표본을 중심으로 변인 간 관계를 재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횡단연구였기 때문에, 형제자매 괴롭힘 피해경험과 또래괴롭힘 피해경험 간의 인과적 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또한 Wolke와 Samara(2004)의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형제자매 괴롭힘의 시간 기준이 '지난 6개월'로 한정되었고, 오히려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이 '지난 1년'간으로 더 넓게 측정되어, 형제자매 괴롭힘 피해자 중 같은 기간 동안 또래괴롭힘 피해경험도 있

는 비율을 측정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 형제자매 괴롭힘 피해경험이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을 정적으로 예측하였으나, 형제자매 괴롭힘 피해경험과 성격적 자기비난, 대처효능감 모두가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을 설명하는 비중은 5%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김진구, 김은하(2017)의 연구에서는 다른 매개변인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제자매 괴롭힘 피해경험이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을 직접적으로 11.5% 설명한 바 있다.

본 연구모형에서 나타난 낮은 설명량은, 형제자매 괴롭힘이 또래괴롭힘과는 다른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일부 설명할 수 있다. 즉, 형제자매 관계는 괴롭힘과 같은 갈등 관계가 있더라도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는 서로 지지할 수 있으며, 주변인이 존재하는 또래괴롭힘과 달리 집단적 성격이 약하고, 부모의 중재와 감독이 더 가용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중학생의 경우 더 어린 연령의 아동들과 달리 형제자매 괴롭힘에 대처할 나름대로의 전략을 발달시켰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모형에서 중학생의 형제자매 괴롭힘 피해경험이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종단연구로서 더 어린 연령에서의 형제자매 괴롭힘 경험에 주목하고, 개인 내적 변인뿐 아니라 또래괴롭힘에 기여하는 환경적 변인을 함께 고려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이와 더불어, 형제자매 괴롭힘 피해경험 뿐 아니라 가해행동을 보이는 경우를 통제하지 못한 것이 본 연구의 낮은 설명량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추후에는 이를 통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기보고로 인한 잠재적 사회적 바람직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후

연구에서는 부모나 교사보고 등을 활용하여 괴롭힘 피해경험을 측정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 참고문헌

- 김경희 (2016).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디지털융복합연구*, 14(10), 33-43.
- 김연화, 한세영 (2010). 또래괴롭힘 행동경향성에 관련된 개인, 가족 및 학교환경변인 탐색.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8(2), 95-111.
- 김진구, 김은하 (2017). 형제자매 괴롭힘 경험과 내면화 문제간의 관계에서 친구관계의 질에 의해 조절된 또래괴롭힘 경험의 매개효과-일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상담학연구*, 18(2), 271-296.
- 배화옥 (2011). 형제폭력을 매개로 한 폭력의 세대간 전이 검증. *아동과 권리*, 15(2), 251-269.
- 서미정 (2008). 방관자의 집단 특성에 따른 또래괴롭힘 참여 역할행동. *아동학회지*, 29(5), 79-96.
- 이승연, 최은지, 황보람 (2017). 초등학생의 지각된 부/모의 폭력 및 비폭력에 대한 지지, 또래괴롭힘에 반대하는 태도와 가해행동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0(4), 29-47.
- 정재은, 장재홍 (2017). 청소년이 경험한 부부 폭력, 자녀학대, 형제폭력과 학교폭력 가해/피해 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24(5), 179-209.
- Baldry, A. C., & Farrington, D. P. (2000). Bullies

- and delinquents: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parental styles. *Journal of Community & Applied Social Psychology*, 10(1), 17-31.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 Bandura, A. (1993). Perceived self-efficacy in cognitive development and functioning. *Educational Psychologist*, 28(2), 117-148.
- Benight, C. C., & Harper, M. L. (2002). Coping self efficacy perceptions as a mediator between acute stress response and long term distress following natural disasters.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5(3), 177-186.
- Benight, C. C., & Bandura, A. (2004). Social cognitive theory of posttraumatic recovery: The role of perceived self-efficac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2(10), 1129-1148.
- Bouchard, G., Plamondon, A., & Lachance-Grzela, M. (2018). Parental intervention style and adult sibling conflicts: The mediating role of involvement in sibling bullying.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doi:10.1177/0265407518793227
- Bowes, L., Wolke, D., Joinson, C., Lereya, S. T., & Lewis, G. (2014). Sibling bullying and risk of depression, anxiety, and self-harm: A prospective cohort study. *Pediatrics*, 134(4), 1-8.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 136-162). Newbury Park, CA: Sage.
- Bryant, B. K., & DeMorris, K. A. (1992). Beyond parent-child relationships: Potential links between family environments and peer relations. In R. D. Parke & G. W. Ladd (Eds.), *Family-peer relationships: Modes of linkage* (pp. 159-190). Hillsdale, N.J: Erlbaum.
- Buist, K. L., Deković, M., & Prinzie, P. (2013). Sibling relationship quality and psychopathology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 meta-analysis. *Clinical Psychology Review*, 33(1), 97-106.
- Byrne, B. M. (1989). *A primer of LISREL: Basic applications and programming for confirmatory factor analytic models*. New York; Springer-Verlag.
- Carr, S. N., & Francis, A. J. (2010). Do early maladaptive schemas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experiences and avoidant personality disorder features? A preliminary investigation in a non-clinical sampl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34(4), 343-358.
- Celano, M., Hazzard, A., Campbell, S. K., & Lang, C. B. (2002). Attribution retraining with sexually abused children: Review of techniques. *Child Maltreatment*, 7(1), 64-75.
- Chang, E. C. (1998). Dispositional optimism and primary and secondary appraisal of a stressor: Controlling for confounding influences and relations to coping and psychological and physical adjust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4), 1109-1120.
- Chawalisz, K., Altmaier, E. M., & Russell, D. W. (1992). Causal attributions, self-efficacy cognitions, and coping with stres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1(4), 377-400.
- Cieslak, R., Benight, C. C., & Lehman, V. C.

- (2008). Coping self-efficacy mediates the effects of negative cognitions on posttraumatic distres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6(7), 788-798.
- Dunn, J., & McGuire, S. (1992). Sibling and peer relationships in childhood.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3(1), 67-105.
- Dykas, M. J., Ziv, Y., & Cassidy, J. (2008). Attachment and peer relations in adolescence.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10(2), 123-141.
- Egan, S. K., & Perry, D. G. (1998). Does low self-regard invite victimiz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4(2), 299-309.
- Finkelhor, D., Turner, H., & Ormrod, R. (2006). Kid's stuff: The nature and impact of peer and sibling violence on younger and older children. *Child Abuse & Neglect*, 30(12), 1401-1421.
- Fornell, C., & Bookstein, F. L. (1982). Two structural equation models: LISREL and PLS applied to consumer exit-voice theory.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9(4), 440-452.
- Graham, S., & Juvonen, J. (1998). Self-blame and peer victimization in middle school: An attributional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34(3), 587-599.
- Hoetger, L. A., Hazen, K. P., & Brank, E. M. (2015). All in the family: A retrospective study comparing sibling bullying and peer bullying. *Journal of Family Violence*, 30(1), 103-111.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1), 1-55.
- Little, T. D., Rhemtulla, M., Gibson, K., & Schoemann, A. M. (2013). Why the items versus parcels controversy needn't be one. *Psychological Methods*, 18(3), 285-300.
- Major, B., Mueller, P., & Hildebrandt, K. (1985). Attributions, expectations, and coping with abor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3), 585-599.
- Janoff-Bulman, R. (1979). Characterological versus behavioral self-blame: Inquiries into depression and ra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10), 1798-1809.
- Kiselica, M. S., & Morrill-Richards, M. (2007). Sibling maltreatment: The forgotten abuse.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85(2), 148-160.
- Kline, R.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Guilford.
- Machmutow, K., Perren, S., Sticca, F., & Alsaker, F. D. (2012). Peer victimisation and depressive symptoms: Can specific coping strategies buffer the negative impact of cybervictimisation?. *Emotional and Behavioural Difficulties*, 17(3-4), 403-420.
- Menesini, E., Camodeca, M., & Nocentini, A. (2010). Bullying among siblings: The role of personality and relational variables.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8(4), 921-939.
- Meyers, A. (2017). Lifting the veil: The lived experience of sibling abuse. *Qualitative Social Work*, 16(3), 333-350.
- Mueller, P., & Major, B. (1989). Self-blame,

- self-efficacy, and adjustment to abor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6), 1059-1068.
- Nikiforou, M., Georgiou, S. N., & Stavrinides, P. (2013). Attachment to parents and peers as a parameter of bullying and victimization. *Journal of Criminology*, 1, 1-9.
- Olweus, D. (1991). Bully/victim problems among schoolchildren: Basic facts and effects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In D. J. Pepler, & K. H. Rubin (Eds.), *The development and treatment of childhood aggression* (pp. 411-448). Hillsdale, NJ: Erlbaum.
- Olweus, D. (1994). Bullying at school: Basic facts and effects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5(7), 1171-1190.
- Ozer, E. M., & Bandura, A. (1990). Mechanisms governing empowerment effects: A self-efficacy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3), 472-486.
- Perry, D. G., Hodges, E. V. E., & Egan, S. K. (2001). Determinants of chronic victimization by peers: A review and new model of family influence. In J. Juvonen, & S. Graham (Eds.), *Peer harassment in school: The plight of the vulnerable and victimized* (pp. 73-104). New York: Guilford Press.
- Rosen, P. J., Milich, R., & Harris, M. J. (2007). Victims of their own cognitions: Implicit social cognitions, emotional distress, and peer victimization.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8(3), 211-226.
- Rosen, P., Milich, R., & Harris, M. (2009). Why's everybody always picking on me? Social cognition, emotion regulation, and chronic peer victimization in children. In M. J. Harris (Ed.), *Bullying, rejection, and peer victimization: A social cognitive neuroscience perspective* (pp. 79-100). New York: Springer.
- Schacter, H. L., White, S. J., Chang, V. Y., & Juvonen, J. (2015). "Why me?": Characterological self-blame and continued victimization in the first year of middle school. *Journal of Clinical Child & Adolescent Psychology*, 44(3), 446-455.
- Salmivalli, C., Lagerspetz, K., Björkqvist, K., Österman, K., & Kaukiainen, A. (1996). Bullying as a group process: Participant roles and their relations to social status within the group. *Aggressive Behavior: Official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Research on Aggression*, 22(1), 1-15.
- Schwartz, D., Dodge, K. A., & Coie, J. D. (1993). The emergence of chronic peer victimization in boys' play groups. *Child Development*, 64(6), 1755-1772.
- Shaver, K. G., & Drown, D. (1986). On causality, responsibility, and self-blame: A theoretical not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4), 697-702.
- Singh, P., & Bussey, K. (2009). The development of a Peer Aggression Coping Self-Efficacy Scale for Adolescents.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7(4), 971-992.
- Singh, P., & Bussey, K. (2011). Peer victimization and psychological maladjustment: The mediating role of coping self efficacy.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21(2), 420-433.

- Slomkowski, C., Rende, R., Conger, K. J., Simons, R. L., & Conger, R. D. (2001). Sisters, brothers, and delinquency: Evaluating social influence during early and middle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72*(1), 271-283.
- Smith, J., & Ross, H. (2007). Training parents to mediate sibling disputes affects children's negotiation and conflict understanding. *Child Development, 78*(3), 790-805.
- Sobel, M. E. (1982).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In S. Leinhardt (Eds.), *Sociological methodology* (pp. 290-312).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Stauffer, K., & DeHart, G. B. (2006). Crossing social contexts: Relational aggression between siblings and friends during early and middle childhood.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7*(3), 228-240.
- Tilghman-Osborne, C., Cole, D. A., Felton, J. W., & Ciesla, J. A. (2008). Relation of guilt, shame, behavioral and characterological self-blame to depressive symptoms in adolescents over time.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7*(8), 809-842.
- Wiehe, V. R. (1997). *Sibling abuse: Hidden physical, emotional and sexual trauma*. Thousand Oaks, CA: Sage.
- Wolke, D. & Samara, M. (2004). Bullied by siblings: Association with peer victimisation and behaviour problems in Israeli lower secondary school childre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5*(5), 1015-1029.
- Wolke, D., & Skew, A. J. (2011). Family factors, bullying victimisation and wellbeing in adolescent. *Longitudinal and Life Course Studies, 3*(1), 101-119
- Wolke, D., & Skew, A. J. (2012). Bullying among siblings. *International Journal of Adolescent Medicine and Health, 24*(1), 17-25.
- Wolke, D., Tippett, N., & Dantchev, S. (2015). Bullying in the family: Sibling bullying. *The Lancet Psychiatry, 2*(10), 917-929.
- Yabko, B. A., Hokoda, A., & Ulloa, E. C. (2008). Depression as a mediator between family factors and peer-bullying victimization in Latino adolescents. *Violence and Victims, 23*(6), 727-742.
- Yeh, H. C., & Lempers, J. D. (2004). Perceived sibling relationships and adolescent developmen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3*(2), 133-147.
- 1차원고접수 : 2019. 04. 10.  
수정원고접수 : 2019. 05. 21.  
최종게재결정 : 2019. 05. 30.

## The Relationship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Sibling Bullying Victimization, Characterological Self-Blame, Coping Self-Efficacy, and Peer Bullying Victimization

Jung-min Yun

Eun-ju Lee

Seung-yeon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s among sibling bullying victimization (SBV), characterological self-blame (CSB), coping self-efficacy (CSE) and peer bullying victimization (PBV) in middle-school students to address how SBV develops into PBV. Self-reported data from 559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aged 14 to 16 years were analyz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Results indicated that PBV directly predicted SBV, and the mediation effects of CSB and CSE were also significant. In other words, victimized experience with siblings increased the level of CSB, which in turn lowered CSE. Consequently, this raised the possibility of being victimized within peer groups. This study is noteworthy in that it is the first attempt to examine a concrete mechanism between PBV and SBV in Korea. Based on the findings, intervention strategies for PBV are discussed.

*Key words* : sibling bullying victimization, peer bullying victimization, characterological self-blame, coping self-efficacy